

정대협: 제 94- 호

수 신: 현생존강제군대위안부피해자대책협의회 중앙회 대표

(주소: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134-28)

제 목: 본회 활동 왜곡에 대한 사과 요구

일본에 대한 공동노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에 귀 단체의 행동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귀단체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본회에 대한 심한 명예 훼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성명서에서는 "...우리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신대대책협의회와 태평양유족회에 가입을 하여 일본정부의 지난 역사의 만행을 밝히는데 앞장을 섰지만 결국은 우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팔아 모금운동을 벌여 피해자에게는 단 한푼도 주지 않고 각 단체들이 착취하고...", "...그리로 아직도 피해자들을 빙자해서 일본 등지를 다니며 구걸행위를 하고 있는 각 단체는 우리 피해자들을 더 이상 들먹이지 말고 그만 물러나야 합니다. ...왜 우리 피해자들을 빙자해서 일본 등지를 다니며 증언 집회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거두어 들어 피해자에게는 단 한푼도 들어오지 않는 사기행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조선 민족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활동을 왜곡시키고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본회는 지난 1993년 12월 정신대할머니생활기금모금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켜 모금활동을 벌여 93년 7월 26일 피해자들에게 모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당일 모금 수혜자에게서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전체 회계보고를 하였고 이 자료들을 본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귀 단체회원들과 대표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 등지의 일본군'위안부'관련 집회에서 보내온 모금은 할머니 개인에게, 할머니 전체의 생활보조를 위해, 혹은 이 문제의 대책활동 등으로 주최측에서 원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본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이에 대한 귀단체의 성실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한번이라도 더 일어난다면 본회는 법률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 나가노 법무상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일본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해결에 나설 자세가 되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1994년 5월 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 효 재

윤 정 욱

김 희 원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B-1

전화: 263-2802